

HS효성첨단소재, 에어백 글로벌 시장 파트너 자리매김

차량 안전 규제 강화 힘입어 에어백 시장 2032년 50조원까지 성장 세계 점유율 1위...친환경 제품·고객사 니즈 부합 신제품 개발 박차

에어백 세계 시장 점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HS효성첨단소재가 차량 안전 규제 강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특히 에어백 제조의 모든 공정을 자체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일 시장조사기관 맥스마이즈 마켓 리서치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차량 안전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에어백 시장은 2032년 50조원에 가까운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1조원(155억달러) 규모였던 에어백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오는 2032년에는 48조원(335억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에어백의 성장세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차량 안전 규제로 인도·브라질·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 좌석 에어백 의무화 조치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는 최대 10개의 에어백을

탑재할 정도로 구성 부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어백 소재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고품질 에어백을 공급하며 글로벌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HS효성첨단소재는 에어백 소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왔던 국내에서 최초로 에어백용 나일론 66 원사(原絲)와 폴리에스터 원사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세계 최대 에어백 원단 브랜드인 GST(Global Safety Textiles)를 인수한 이후 원사부터 직조, 코팅, 봉제에 이르는 전 공정을 자체 보유한 유일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전 세계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의 에어백용 주력 제품군에는 고밀도 리사이클 원단 '플랫 패브릭', 고성능 쿠션



HS효성 에어백 공장.

(HS효성 제공)

형 에어백, 특수 제직 기술로 생산돼 오랜 팽창 상태를 유지하는 'OPW(One Piece Woven)' 등이 있다.

'플랫 패브릭'은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해 내구성 이 높고 고온에 잘 견디며, 쿠션형은 자동차용은 몰

론 오토바이, 자전거 등 최근 확장되는 모빌리티 시장에 대비해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특히 OPW는 사고 발생 시 팽창 후에도 공기압을 유지해 전복 사고 등 장시간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탑승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차세대 에어백으로 주목받

고 있다.

친환경 경영 역시 HS효성첨단소재의 강점이다. 에어백 원단 제작에 리사이클·바이오 기반 원사를 도입해 환경 부담을 줄였으며, 독일 R&D 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균일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루마니아,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세계 주요 시장에 구축한 생산 기지는 고객사 납기 대응과 비용 효율성에서 큰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HS효성첨단소재 모회사인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에어백 원단 생산 사업에 큰 애정을 쏟고 있다. 앞서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3월 바르나 탄초스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과 세제 혜택 등 투자 환경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실제 루마니아에 있는 GST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HS효성 관계자는 "HS효성첨단소재는 안정적인 품질과 소재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에어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친환경 제품과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최고의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전력데이터·AI로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서비스 지원

중기중앙회·KCB와 협약

218만명 신용등급 상향 예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공동개발한다.

8일 한전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CB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포용적 금융지원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영위기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전은 이번 협약 및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전체 소상공인 596만명 중 36.6%에 달하는 218만명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을 예상하고 있다. 한전은 또 소상공인의 대출승인을 향상 및 금리 인하,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연동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체계 및 정책지표 개발'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고, 11개월 동안 노력한 결과물이다.

한전 등 3개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 관련 데이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



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김동철(왼쪽부터) 한전 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황승섭 KCB 사장이 서비스 제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터를 결합·분석해 개발한 새로운 '대안(代案)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오는 9월부터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신용평가모형은 한전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 납부 정보,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등 실물 경제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는 7~8월 2개월 간 데이

연계 시스템 간 안정화 과정을 거쳐 금융사 등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캐스퍼 돌풍 타고 GGM 신입사원 33명 "노사상생 다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서약 유럽·일본 흥행 생산 목표 늘려

유럽과 일본에서 흥행몰이 중인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다짐했다.

GGM은 9일 사내 상생관에서 올해 1차 공채 신입사원 33명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서약식과 입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들은 협정서를 통해 "GGM의 설립 기반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부속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다.

캐스퍼가 판매 호조를 이어가면 GGM 추가 인력 채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GGM 출범 이후 노동조합 설립과 교대제 등 계속된 노사 갈등으로 공급 지연과 생산 효율 저하 등 문제를 겪고 있어 노사 간 소통과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GGM은 지난 2019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체결한 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전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근로 조건을 조율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9일 사내 상생관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서약식과 입사 기념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GM 제공>

윤몽현 GGM 대표의사는 "GGM은 돈을 벌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세금과 기업들의 투자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특수한 회사"라면서 "회사가 지난 2021년부터 빠르게 안정되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회사 시스템을 믿고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차의 위탁을 받아 GGM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수출명 인스타)은 유럽과 일본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

히 지금까지 현대차가 팔지 못했던 일본 시장 진출까지 성공하면서 GGM도 활기를 띠고 있다.

캐스퍼의 지난 1~5월 유럽 판매량은 1만 342대로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유럽 판매량은 1~5월 국내 판매량(3902대)보다 6000대 이상 많다. 일본에서는 고객 인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판매 100대를 돌파했다. 지난 4월 출시 후 5월부터 인도가 시작됐는데, 한 달 만에 104대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현대차의 일본 내 총 판매량(130대)의 80% 수치다. /김해나 기자 khn@

(93.4GW)으로 2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치였던 97.1GW(2024년 8월 20일)보다는 1.4GW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8일 오후 전력수요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전력수요량이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 여름 평년보다 짧은 장마에 이어 이른 시기부터 폭염 및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냉방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7기가와트)를 기록했다. 직전 7일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것도 7월 7일

광주경총, 직장적응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접수

신입직원 이탈 방지·장기근속 도모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인 직장 적응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 기업(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소기업이며 관리자와 입사 3년 이내 15~39세 신입 청년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광주경총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와 조직 관리, 신입 직원 조직 적응력 향상, 커뮤니케이션 능

력 향상,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하고 청년 신입 직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목표로 한 1000명·교육 100회 중 875명·교육 51회를 충족했다. 교육은 8~10월 진행되며 광주시 누리집과 광주경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총 일자리 사업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농어촌공사 재해예방·농업 SOC 사업 '속도'

2회 추경 1438억원 증액 확정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농업SOC사업 예산 1438억원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태풍·홍수·가뭄 등 농업 재해예방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보수·보강 및 개선 등을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조수·파도 등에 해안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조제개보수' 사업에 1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77%, 방조제의 73%가 설치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용배수로도 47%가 흡수로 남아있는 등 개·보수해야 할 시설들이 많은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시설 개선 및 농업인들의 안전성 확보 등이 기대되고 있다.

공사는 또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농경지의 배수체계 개선을 통해 침수를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상습 가뭄 지역에 저수지·양수장·관선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추경을 통



용배수로가 노후화돼 파손돼 있다. 공사는 저수지, 용배수로 등을 개·보수하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SOC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재해예방과 더불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추경만큼 올해 말까지 추경액을 포함한 예산 전액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SW 테스트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25일 호남권 예선 대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8일까지 '2025년 제4회 소프트웨어(SW)테스트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업의 SW 제품을 참가자가 직접 테스트하고 발견한 결함을 분석·보고하는 실전 중심의 품질 경진대회로, 지역 내 재직자, 재학생,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회 참가자는 실무 기반 테스트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 시 숙박, 기념품, 전국 참가자들과의 기술 교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8일까지 받고, 호남권 예선은 25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광주 대표 4개 팀이 진출하는 본선은 8월 25~27일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은오

프릭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GICON 누리집 또는 광주디지털품질역량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디지털 품질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33.74 (+18.79)
↑ 코스닥	790.36 (+6.12)
↑ 금리(국고채 399년)	2.478 (+0.001)
↑ 환율(US D)	1376.70 (+8.80)
<small>(오후 4시 54분 기준)</small>	